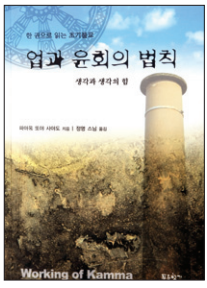


“이제 1만권, 법보시 2만권까지 정진”

김천 성전사 정명 스님 불교학 전공생들에 책 전달



업과 윤회의 법칙
파아옥 또야 사야도 지음
정명 올림
푸른향기
비매물

한 스님이 자신의 연구서를 3년째 불교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명상수행가로서 초기불교를 연구 중인 정명 스님(김천 성전사 주지)이 2월 14일 한권으로 읽는 초기불교 시리즈 가운데 《업과 윤회의 법칙》(푸른향기 刊)을 전국 4년제 불교 관련 전공 대학(원)생 3000명에게 각 학교 사무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로써 3년전부터 시작된 스님의 법보시 릴레이는 1만권을 기록했다. 정명 스님은 이 릴레이를 2만권이 될 때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이날 스님이 학생들에게 전달한 책은 정명 스님이 직접 번역·출간했다. 책은 지난해 한국을 찾아 간화선과 위빠사나 국제연찬회에 초기불교 대표로 참석한 미얀마 파아옥 또야 사야도의 저서 'The working of karmmas'를 번역한 것이다.

파아옥 또야 사야도 스님은 미얀마 정부로부터 '명상수행을 지도하는 훌륭한 큰 스님'이라는 칭호를 받은 선지식이다. 스님은 미얀마에서 《아비담마》와 《정정도론》에 입각한 불교명상법을 정리해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파아옥 또야 사야도 스님은 “오로지 담마(法)만 있다”고 강조한다.

책에서 파아옥 또야 사야도 스님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괴로움의 소멸인 니르바나(열반)를 얻어야 하는 당위성과 그 과정을

빠알리 삼장의 해당 구문을 인용해가며 풀이하고 있다.

역자 정명 스님은 “책은 구체적인 불교수행법을 제외한 한권으로 읽는 초기불교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한다.

역자는 이 책을 전국 4년제 대학의 도서관, 대학연구단지의 300여 업체 자료실, 전국 20여 승가대학(강원)의 학인스님 및 10여 불교대학 학인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아무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이룩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생각의 계승자, 나는 생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바로 생각과 생각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자는 책을 통해 나눔과 베품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며 수행을 해나간다면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적고 있다.

역자가 릴레이 법보시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초기불교의 가르침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역자는 이 릴레이 법보시를 뜻을 함께 하는 전국 불자들의 성금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 달에 한번 재가자들에게도 불교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역자는 반드시 2만권 법보시를 회향하겠다고 강조한다. www.jungmyeong.com

조동성 기자



붓으로 만나는 옛사람 정취



선비의 향기, 그림으로 만나다
지은이 백인산
다섯수레
1만6800원

《선비의 향기, 그림으로 만나다》는 간송미술관 백인산 상임연구위원이 화훼영모화와 사군자화를 통해 우리 그림으로 안내하는 책이다.

책은 다섯수레의 '아름답다! 우리 옛 그림' 시리즈의 첫 번째 권으로 출간된 책은

우리 그림 가운데 꽃과 새, 짐승을 그린 화훼영모화 22점(공민왕의 '이양도' 신사임당의 '포도도' 정선의 '서과투서' 김홍도의 '해탈노화' 등)와 사군자화 30점(김정희의 '불이선란' 이인상의 '병국도' 민영익의 '풍우죽' 등)을 엄선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풀이하고 있다.

책장을 넘기면 어렵게만 느껴지던 한국화를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그림 속에 담긴 옛사람의 숨겨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도판이 큼직하게 편집된 시원스런 화면이 그림 감상의 맛을 더하는 책이다.

조동성 기자 cetana@hyunbul.com

서재탐방 |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철학서 읽던 소년, 빨리어 경전 번역하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59)은 20년 넘게 빨리어 경전 번역에 매진해왔다.

전 회장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시 쓰던 말인 빨리어로 기록된 초기불교 경전 《쌍옷따니까야》(2002) 《맛따니까야》(2003) 《양곳따니까야》(2008) 《디가니까야》(2011) 4부의 원전 완역을 모두 마쳤다. 서양에서는 이미 해낸 일이지만 개인이 혼자서 4부 니까야를 완역한 것은 세계 처음이다. 전재성 회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사전 편찬 작업에도 열심이다. 하루 8시간씩 번역 작업에 몰두한 그는 《빠알리어-한국어 사전》은 이미 완성해서 출간했다. 《한국어-빠알리어 사전》은 탈고 작업을 마쳤다.

무엇이 그를 빨리어 번역 작업에 몰두 할 수 있게 했을까. 서울 홍제동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았다.

전재성 회장의 집은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사무실이자, 번역작업을 하는 연구소다.

영어 독일어 산스크리트어 등 3개 국어를 섭렵한 학자답게 그의 집에는 각종 외국어로 된 철학서와 불서들을 포함한 5000여 권의 도서들이 있다.

전재성 회장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출생했다. 부산 난민촌에서 자란 그는 4세 때 끓는 물에 화상을 입었다. 이후 그는 내성적이며 가슴에 응어리를 지닌 사춘기 시절을 보냈다.

“어려서 읽은 화상의 흔적과 허약한 체질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고(苦)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종교에 의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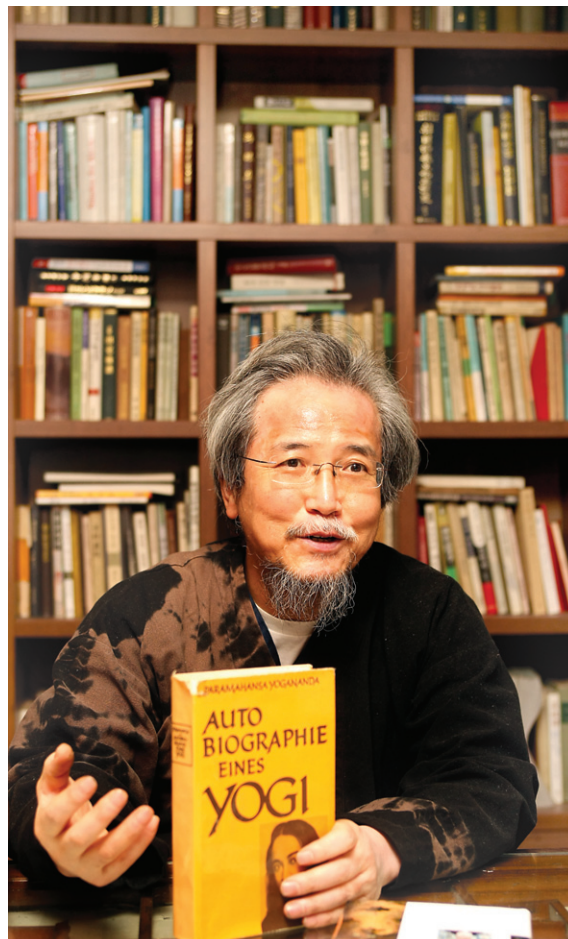
중학교 시절, 전 회장은 불교교리와 명상을 배울 수 있는 불교모임에 나가면서 종교와 철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모임을 계기로 전 회장은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를로 폰티 등 실존철학과 서양철학 등에 심취해 많은 책들을 읽었다. 메를로 폰티의 《지각의 현상학》등을 읽고 실존철학에 푹 빠졌고, 붓다의 가르침 중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기록으로 받아들여지는 월플라 라훌라의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를 읽고서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전 회장은 서울대 농대에 입학해 불교학회를 조직했다. 농대불교학회장이었다던 그는 서울대 불교학회 연합인 '총회'에서 활동했다. 자연스레 문리대 불교학회, 법불회 등 단과대 학생들과 어울리게 됐고 유신체제를 고민하는 리더들을 만났다. 대불련(한국대 학생불교연합회) 총무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주화운동 집회에 자주 참가하게 되자 긴급조치 4호를 피할 수 없게 돼 1974년 서대문형무소에 3개월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후 대불련 회장을 맡은 전 회장은 '민중불교회' 조직을 만들어 시국을 토론하며 청년시절을 보냈다. 민주화를 위한 시위보다 집필을 통한 계몽운동으로 전향해 '민중불교론' 원고를 써서 많은 청년불자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다.

전 회장은 대학시절 여자친구로부터 가스통 바슐라르의 《촛불의 미학》을 선물 받아 읽고서는 민중불교운동을 하는 등 외면적으로 요동치던 자신을 내면적으로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인도철학을 전공하는 계기를 얻는다. 바로 파



전재성 회장은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영어 자서전을 읽고 인도 철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어릴 때 읽은 화상 불교입문 계기
독일서 거지성자 만나 빨리어 번역 결심
韓-빨리어 사전 탈고...이피부다가 번역 중

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자서전을 읽고 나서다. 그는 친구로부터 영어 원서인 요가난다의 오토바이오그라피를 받아 사전을 뒤져가며 밤새도록 읽었다. 현재는 《요가난다(영혼의 스승들)》이라는 번역서로 나온 이 책은 20세기 최고의 요가 수행자였던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자서전으로 인간의 영혼과 철단과학, 기적의 법칙 등을 논한 인간 구원의 이야기이다. 전 회장은 이 책을 읽고 인도 철학으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전 회장은 동국대 대학원에 진학해 인도철학 연구에 매진하다 1980년대 초 독일 유학을 결심했다. 쾰른대학에 입학한 그는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 티베트어를 독일어로 배웠다. 이듬해 본대학으로 옮긴 전 회장은 '거지성자'인 페터 노이아르 선생을 만났다.

“책은 당근을 꺾어 먹고 있던 노이아르 선생이 썩 저에게 당근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신선처럼 눈동자가 맑고 깊었습니다.”

전 회장은 거지성자 페터 노이아르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페터 노이아르는 불교경전을 읽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노숙자였다. 그를 통해 전 회장은

독일의 초기불교에 대한 연구 상황을 알게 됐다.

“독일은 1910년에 이미 초기불교 경전이 번역됐어요. 한국은 아직 번역이 안 된 상태였는데 너무 장피하더라구요. 나중에 보니 노이만이라는 학자가 니까야 번역을 다 해냈고 헤르만 헤세는 동양학자인 삼촌 집에 놀러가 노이만이 번역한 불경을 가져와 읽고 《신타까니까야》같은 문학 작품을 탄생시킨 거였죠.”

전재성 회장은 1700년 역사를 자랑한다는 한국불교가 초기 불교경전도 번역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자괴감을 느꼈다. 그는 곧 빨리어 공부와 경전번역에 빠져들었다.

당시 페터 노이아르는 전 회장에게 《미라레빠의 심판송》을 소개했다. 전 회장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티베트의 수행자 미라레빠가 말하는 불교를 소개한 이 책을 읽고 티베트어를 부전공으로 선택해 공부했다.

한국에 돌아온 그는 1997년 빠알리성전협회를 설립하고 4부 니까야 완역을 마치고 현재는 《쿠타까니까야》의 ‘이피부다가’ (여시아경)를 번역하고 있다.

당시 독일에서 확산된 생태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전 회장은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과 자연과의 조화로움 삶을 영위하는 이야기를 담은 헬렌 니어링의 《조화로운 삶》을 독자들에게 추천했다.

아직도 경전 주석 번역 등 작업할 게 많이 남았다는 전재성 회장은 “14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인 하피즈(Hafez)에 대한 책 등을 쓰고 싶다”며 “다양한 철학서를 비롯한 많은 책을 읽지 않았다면 이런 번역작업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은은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8~2/14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쌤애펜터
2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3	무문관 친구	장휘욱,김사업	민족사
4	방향해도 괜찮아	법륜	지식채널
5	마음수업	이광정	휴
6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들
7	스님은 사춘기	명진	이출
8	하루 한 가지 마음공부법	우학	조화로운삶
9	스님은 중매쟁이	해철	운주사
10	법정 나를 몰들이다	변태주	불광출판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범이 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편집인 日江 합장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 인기 판매 중!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신간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행복한 삶의 길을 터주는 보물열쇠!
바로 이 책 한권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예경·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7,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결히 기다리던 의식집, 송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일찍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신간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사단법인 천우중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신간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중

책값 : 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